

기독교 통계

새신자의 믿음을 갖게 한 최대 요인, 성경공부!

지난 주 넘버즈 121호는 '새신자의 교회출석 경로 및 교회 생활 실태 조사'(한국교회탐구센터) 가운데 새신자가 전도자와 접촉하게 되는 순간부터 교회 출석까지의 과정을 다루었다. 새신자들은 통념과 달리 전도받기 전까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교회 출석 무렵에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즉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를 맞닥뜨린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전도 상황은 다양해서 새신자의 고민을 듣고 나서 전도자로부터 교회에 가자고 권유를 받은 상황부터 특별한 계기가 없는데 권유받은 상황까지 다양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전도를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도를 할 때는 새신자의 상황과 고민에 대한 공감과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있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새신자가 교회에 출석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넘버즈 122호에서는 새신자가 믿음을 갖는데 미치는 영향 요인과 교회 등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새신자의 믿음 형성과 교회 생활을 다룬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새신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 본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있으며, 그들이 교회를 찾아 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며, 전도의 열정을 되살리고 전도 전략을 정교화하는데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22호는 지난 주 121호에 이어 ‘새신자의 교회 출석 경로 및 교회 생활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조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으로서 교회 출석 최근 5년 이내 남녀(새신자)
- 조사 지역 : 전국
- 조사 방법 :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표본 규모 : 총 458명 (유효 표본)
- 표본 추출 : 무작위 추출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4.6\%$
-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조사 기간 : 2021년 8월 20일 ~ 9월 13일(25일간)
- 조사 의뢰 기관 : 한국교회탐구센터
- 조사 수행 기관 : (주)지앤컴리서치

본 조사 결과는 지난 10월 29일에 있었던 한국교회탐구센터의 ‘교회탐구포럼’에서 발표되었다. 이 포럼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새신자 7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되었는데, 모든 발표 내용은 한국교회탐구센터 홈페이지의 「11차 교회탐구포럼 자료집」에 실려 있다.

(http://www.tamgoo.kr/board/bbs/board.php?bo_table=b_resources_2_1&wr_id=141&wr_1=)

※ 포럼 발표 동영상은 유튜브에 3편으로 나뉘어 업로드 되어 있다.

- 정량조사 : <https://www.youtube.com/watch?v=gaGxNyifCHY>
- 정성조사 : <https://www.youtube.com/watch?v=xPoZ8TmbXc0>
- 패널토의 : <https://www.youtube.com/watch?v=U4iJSsZgj1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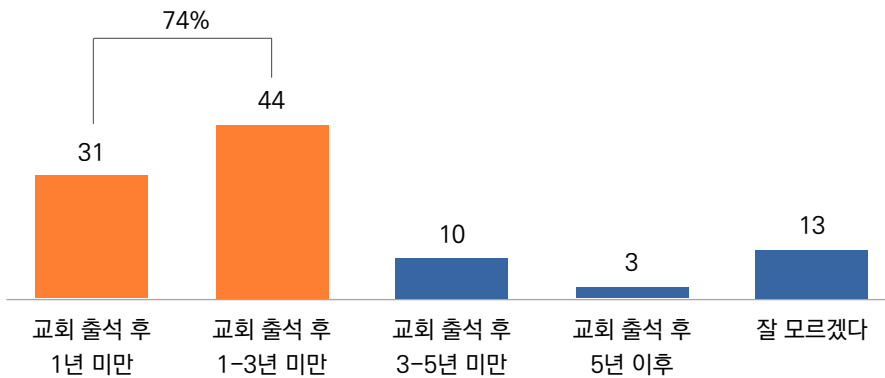
1



새신자가 교회출석 후 믿음이 생기는 기간, 3년 미만 74%

- 새신자가 교회에 나오면 믿음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 이번 조사에서 응답한 새신자들은 교회 나온지 '1년 미만' 이라는 응답이 31%, '1~3년 미만'이 44%로 이 둘을 합하면 교회 출석 후 3년 미만에 믿음이 생겼다는 응답이 74%였다.
- 이 결과로 보면 새신자가 교회에 온 후 1년 동안은 초강력 돌봄, 3년까지는 강력 돌봄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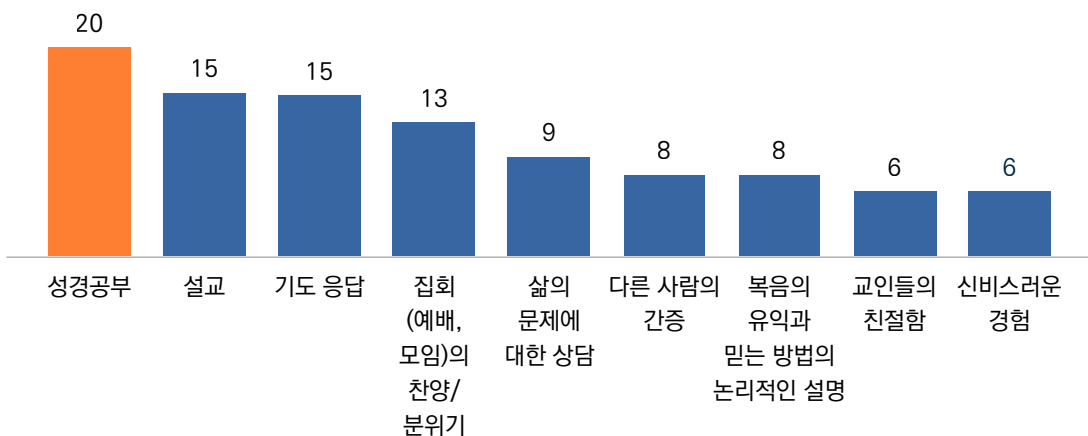
[그림] 새신자가 교회출석 후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확신한 기간 (%)



● 믿음을 갖게 하려면? 성경공부가 제일 중요!

- 새신자가 믿음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특효약은 없다.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데, 이번 조사에서 새신자들은 믿음이 생기는데 '성경공부'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20%)고 응답했다. 그 다음은 '설교'(15%), '기도 응답'(15%)이었다.
- 지속적인 성경공부와 설교 및 기도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신앙적 체험을 느끼게 하는 것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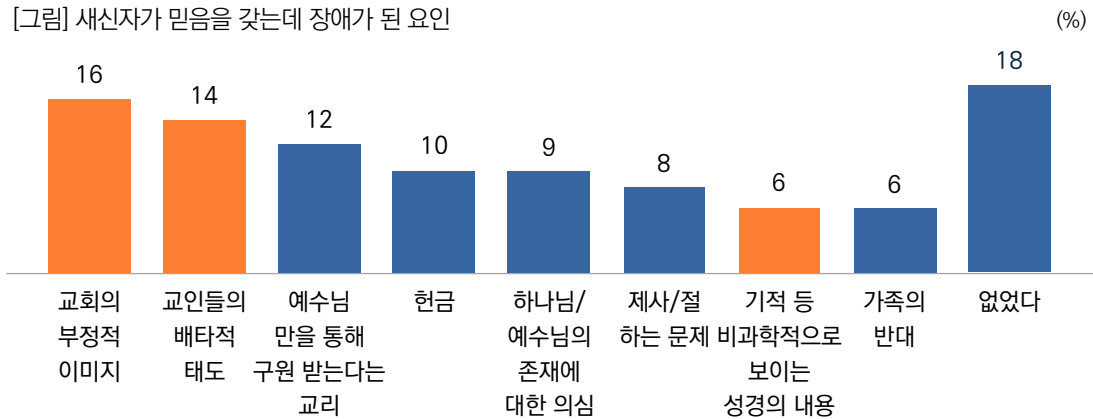
[그림] 새신자가 믿음을 갖는데 도움이 된 요인 (%)



● 믿음을 갖게 하려면?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

- 그러면 새신자가 믿음을 갖는 과정에서 걸림돌은 무엇일까? 가장 큰 걸림돌은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16%)와 ‘교인들의 배타적 태도’(14%)이다.
-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는 교회의 대외적 요인이고, ‘교인들의 배타적 태도’는 교회의 대내적 요인인데, 이 두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새신자가 믿음을 갖는데 걸림돌을 치우는 길이다.
- 초과학 시대이지만 의외로 ‘기적 등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성경의 내용’은 그리 큰 걸림돌이 아닌 것은 주목할만하다.

[그림] 새신자가 믿음을 갖는데 장애가 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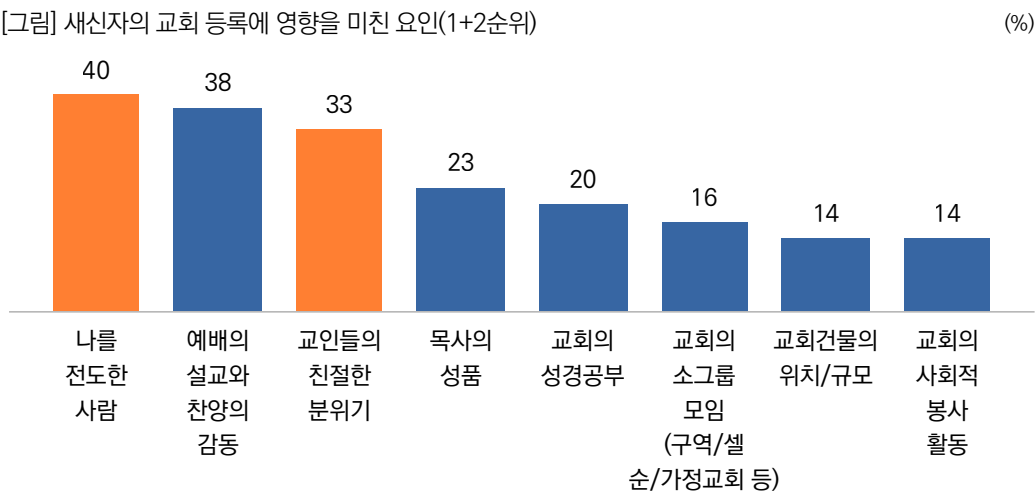


2

교회 등록에 영향을 미친 요인, 예배 요인 보다는 인적 요인 영향이 더 커!

-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성경공부’와 ‘설교’, 그리고 ‘기도’가 영향을 미쳤다면, 교회 등록에는 ‘예배’(38%)도 중요하지만, ‘나를 전도한 사람’(40%)과 ‘교인들의 친절한 분위기’(33%)와 같은 인적 요인이 더 중요했다.
- ‘전도자’는 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등록할 때까지 지속적 돌봄을 그치지 말아야 하며, 새신자에 대해 온 교우가 환영하고 관심을 표해주고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새신자의 교회 등록에 영향을 미친 요인(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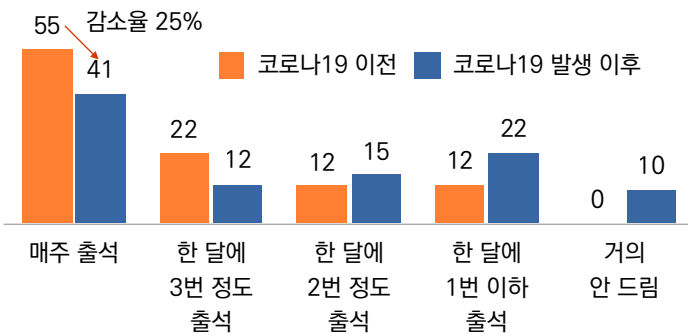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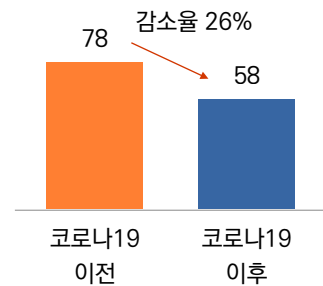
새신자, 코로나19 전후에 '매주 예배드리는' 비율 55% → 41%로 낮아져!

- 새신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주 주일 예배 드리는 비율(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 모두 포함)이 41%였다. 코로나19 이전에는 55%였던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25%의 감소율을 보였는데, 이는 전체 개신교인 감소율(20%P)과 비슷한 비율이다.
- 특히 '거의 안 드린다'는 비율이 10%나 된 것은 주목할 결과여서 각 교회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새신자에 대한 목회적 돌봄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그림] 새신자의 주일 예배드리는 빈도 (온라인 예배 포함, 코로나19 전후 비교)



[참고] 개신교인 전체 주일예배 '매주 출석' 비율* (온라인 예배 포함, 코로나19 전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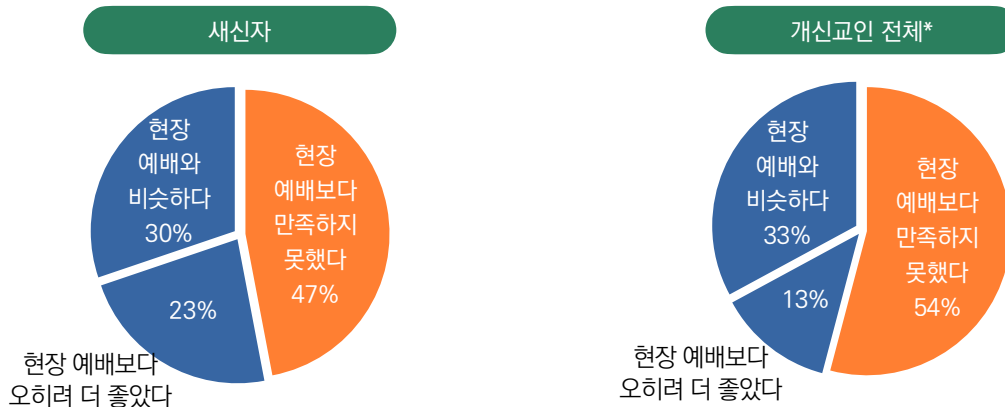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예장통합,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2021.7.(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 6.17-6.28)

● 새신자, 개신교인 전체보다 온라인 예배 만족도 더 높아!

- 새신자의 경우 온라인예배를 드렸을 때 현장예배와 비교하여 온라인예배가 '현장예배보다 좋았다' 23%, '현장예배보다 못했다' 47%였다. 전체 개신교인 조사에서 온라인예배가 '현장예배보다 좋았다' 13%, '현장예배보다 못했다' 54%인 것과 비교하면 새신자의 온라인예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 새신자가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게 되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행동이 고착될 우려가 있다.

[그림] 현장예배 대비 온라인 예배 만족도(온라인 예배자 대상)



*자료 출처 : 예장통합,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2021.7.(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 6.17-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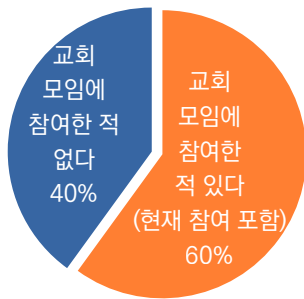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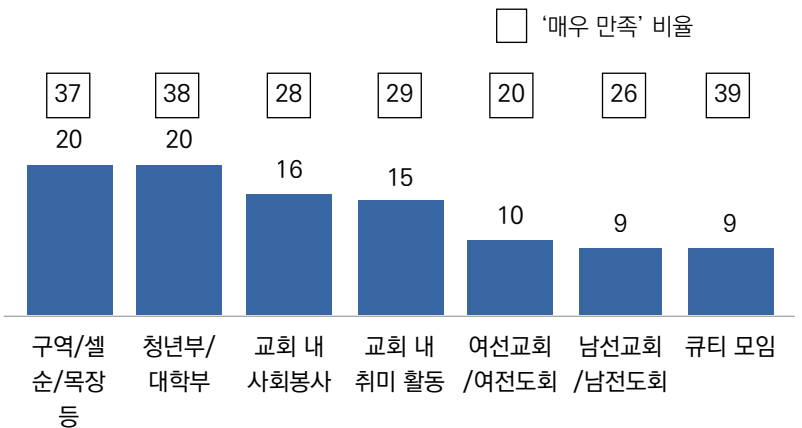
가장 만족도 높은 교회 내 모임 ‘구역/셀/목장 등 소그룹’과 ‘큐티모임’!

- 새신자의 60%는 교회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서, 새신자의 교회 정착에 소그룹 모임 참여가 중요하다 볼 수 있다.
- 참여 모임별 ‘매우 만족’ 비율을 보면, ‘구역/셀/목장 등 소그룹 모임’과 ‘큐티 모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연령대 모임은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청년대학생들은 동질적인 모임 성격으로 인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림] 새신자의 교회 모임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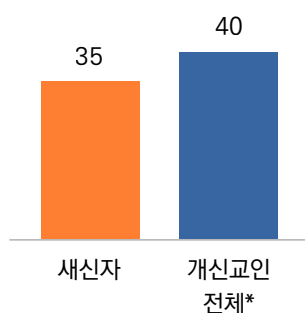
[그림] 새신자의 교회 모임별 참여 경험율(현재 포함) 및 ‘매우 만족’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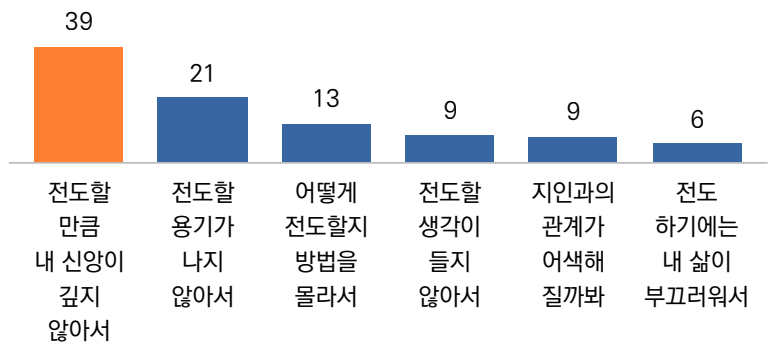
● 새신자도 전도한다, 35%!

- 새신자라고 해서 수동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변해서 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게 되는데, 그 경험률은 35%였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17년 조사에서는 전체 개신교인의 전도 경험이 40%였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새신자의 전도 경험 35%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전도한 경험이 없는 새신자들은 ‘전도할 만큼 내 신앙이 깊지 않아서’(39%)를 전도하지 않은 이유로 응답했다. 또한 ‘전도하기에는 내 삶이 부끄러워서’가 6%였는데, 이 응답 모두 자신이 전도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서 전도에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림] 전도 경험



[그림] 전도하지 않은 이유(새신자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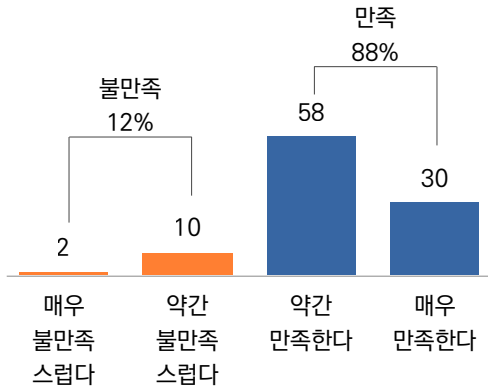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 분석리포트:2018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2018.01.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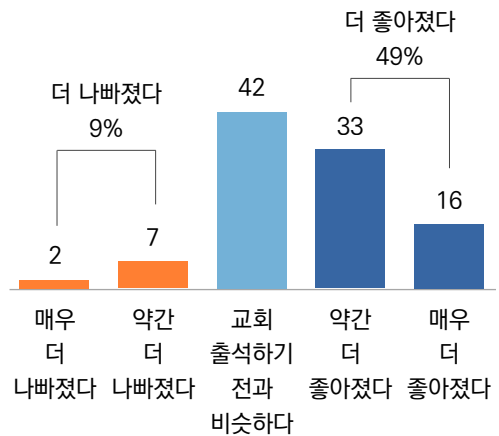
● 새신자의 출석 교회 만족도, 88%

- 현재 출석 교회에 대해 대부분의 새신자(88%)가 만족하고 있어서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 교회 출석 이전과 비교했을 때 교회 이미지가 ‘더 좋아졌다’는 49%였고 ‘나빠졌다’는 9%여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새신자 가운데 교회 이미지가 좋아진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림] 새신자의 출석 교회 만족도 (%)



[그림] 교회 출석 후 교회 이미지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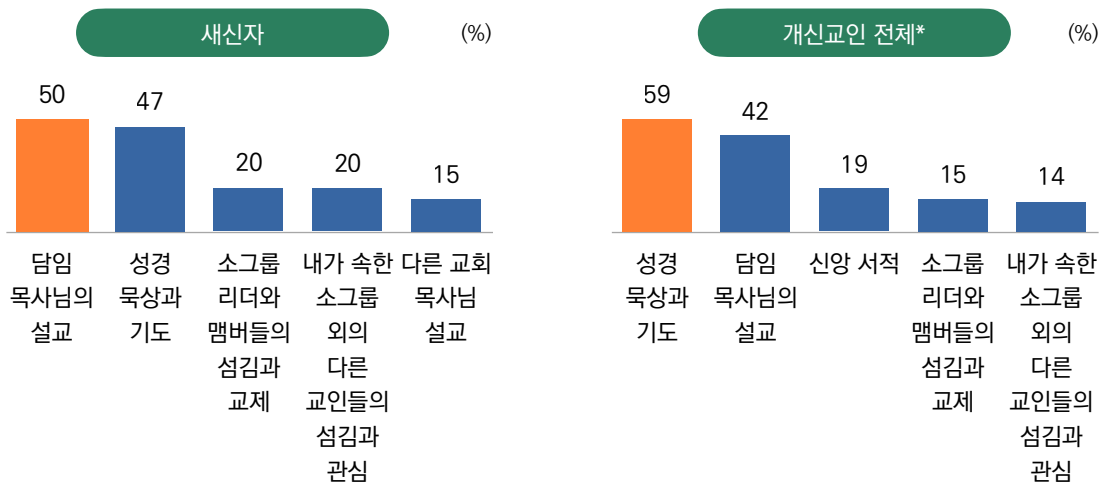
5



코로나19 상황에서 새신자의 신앙생활 도움, 담임목사 설교 영향이 가장 커!

- 코로나19 상황에서 새신자는 ‘담임목사님의 설교’(50%)로부터 가장 큰 도움을 받았으며, 또 ‘소그룹 리더와 멤버들의 섬김과 교제’(20%)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개신교인 전체에서는 ‘성경묵상과 기도’(59%)와 함께 새신자에서 6위로 조사된 ‘신앙 서적’이 3위로 나타났다.
- 이 결과는 전체 개신교인은 신앙 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경묵상과 기도’ 및 ‘신앙 서적’ 등 개인적 경건 생활을 하고 있으나 새신자는 아직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해서 예배 참여와 더불어 목회자와 교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받은 것(상위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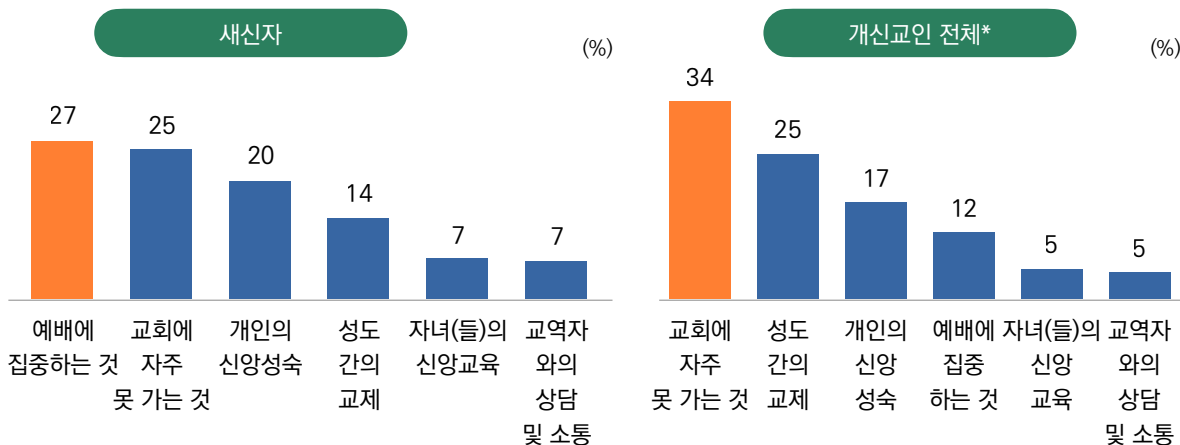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예정통합,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2021.7.(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 6.17-6.28)

● 코로나19 상황에서, 새신자의 신앙생활 어려움 1위, '예배 생활'!

-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을 새신자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27%)과 '교회에 자주 못 가는 것'(25%)이라고 응답했다. 반면에 전체 개신교인은 '교회에 자주 못 가는 것'(34%)과 '성도 간의 교제'(25%)를 꼽았다.
- 새신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장을 받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어 새신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예배 참여 독려가 요구된다.

[그림]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 생활에 어려운 점(상위 5개)



*자료 출처 : 예장통합,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2021.7.(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 6.17-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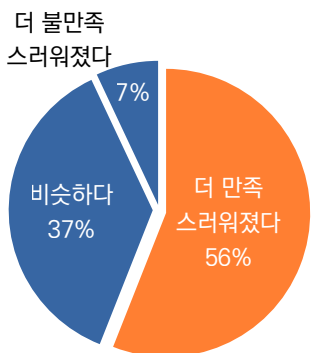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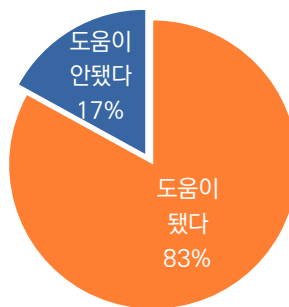
신앙을 가진 후, 삶의 만족도 '이전보다 더 만족스러워졌다' 56%!

- 새신자가 교회출석 후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절반 이상(56%)의 새신자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신앙을 가진 후 삶에 대해 '더 만족스러워졌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불만족은 7% 밖에 되지 않아서 신앙을 통해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 또한 신앙에 관심을 갖게 한 삶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하는데에 신앙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83%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자신의 문제 해결에 신앙이 도움이 되었을 때,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새신자의 교회출석 전과 비교한 현재 삶의 만족도*



[그림] 개인적 삶의 문제 해결에 신앙이 도움이 된 여부**



*5점척도 질문으로 만족과 불만 비율은 (약간+매우) 합한 수치임.
 **4점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거의+별로) 합한 수치임.



시사점

요한복음의 수가성 여인이나 빌립 같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와 보라'는 권유의 말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전도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교회 이미지가 매우 낮아진 현재 상황에서 다짜고짜 '와 보라'는 전도방식은 그 효과가 매우 떨어질 것이다. 지난 121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전도 상황에서 전도자가 피전도자의 고민에 대해 깊이 들어주고 공감하고 또 교회 출석 때까지 지속적으로 돌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됐다.

이번 넘버스 122호의 결과를 보면 교회로 인도된 새신자가 믿음을 갖게 하는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했다. 성경공부와 설교, 복음의 논리적 설명 등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신비스러운 경험 등 '영적 체험', 삶의 문제에 대한 상담과 다른 사람의 간증 등 '상담적 요인' 등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골고루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경공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예전을 중요시했던 카톨릭과 달리 개신교는 성경을 중요시하므로 '성경공부'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성경공부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새신자가 오면 몇 주간에 걸친 양육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양육 과정이 끝나면 세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을 하거나 다른 성경공부를 하도록 한다. 또 구역/속회 등 소그룹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배워 나간다.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가능하다. 소형교회는 인적, 물리적 조건의 한계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6월 예장통합교단에서 실시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추적조사에서 코로나19 이전 대비 성경공부를 실시하는 비율이 500명 이상 중대형교회는 38%였는데, 29명 이하 소형교회는 20%로, 소형교회가 성경공부 중단율이 훨씬 높았다.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최소한 절반이 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임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교회에서 새신자에게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믿음이 생기는데에 성경공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조사 결과 확인했는데, 따라서 개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체계적 과정으로 설계하여 새신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경공부 과정은 새신자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이 과정을 거치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기독교인의 생활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중대형 교회에서는 교역자가 여러 명이어서 성경공부를 지도하거나 평신도 리더가 이끄는 그룹 성경공부를 진행할 수 있지만 소형교회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 기독교 방송의 성경공부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기독교 방송에서는 많은 양질의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고 과거 방송했던 프로그램은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VOD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교리적 성경공부, 책별 성경공부, 주제별 성경공부 등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들을 목회자가 잘 살펴서 새신자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공부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만한 방법이다. 성경공부 방송 프로그램을 새신자가 교회에 모여서 혹은 개별적으로 시청하고 목회자가 이를 점검하고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소형교회가 갖고 있는 인적, 물리적 역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방송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목사님은 주로 대형교회의 유명 목사님들이 많으므로 혹시라도 새신자가 그 목사님 교회로 옮기는 것을 걱정할 수도 있지만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성경공부를 새신자의 필수적 코스로 제공하는 것이 새신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기 위한 길일 것이다.